언어 영역

1. ④	2. ②	3. ②	4. ④	5. ③
6. ④	7. ③	8. ③	9. ③	10. ⑤
11. ③	12. ①	13. ④	14. ①	15. ④
16. ②	17. ①	18. ①	19. ②	20. ②
21. ①	22. ⑤	23. ②	24. ⑤	25. ⑤
26. ③	27. ④	28. ②	29. ③	30. ②
31. ①	32. ①	33. ⑤	34. ⑤	35. ①
36. ⑤	37. ④	38. ⑤	39. ④	40. ③

쓰 기

1.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가)에서는 청소년들이 카페인 함유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현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과 1일 적정 섭취량(체중 1kg당 2.5mg 이하)을 조사, 발표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에서는 청소년들의 하루 카페인 섭취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루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카페인 적정량에 대해서는 (가), (다)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④는 적절한 활용 방안이라 할 수 없다.

① (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청소년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3년부터는 고카페인 식품에 카페인 함유량과 카페인 과잉 섭취를 경계하는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카페인의 과잉 섭취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불면증, 집중력 장애, 메스꺼움 등을 말하였고, 카페인 섭취 욕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제시하였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에서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종류,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등이 언급되었으므로 이 내용들을 활용하여 ③처럼 말할 수 있다.

⑤ (다)를 활용하여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문제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부작용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잉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2.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을 보자. '과연'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라는 의미를 가지며, 주로 생각과 실제가 같음을 확인할 때에 쓰는 말이다. 따라서 문맥상 ㉡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②에서 제시한 '무려'도,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에 어울리지 않는다. 문맥의 흐름상 ㉡은 '기껏해야 고작'이라는 의미의 '겨우'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셋째 문단에서는 공정 무역이 '착한 무역'으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은 공정 무역 제품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해친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조건에 맞는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②이다. '공정 무역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에서는 공정 무역이 갖는 의의를 언급하였고,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해 주세요.'에서는 공정 무역 제품의 소비를 직설적으로 권유하였다. 그리고 '여러분의 착한 소비가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내리는 촉촉한 단비가 될 것입니다.'에서는 '메마른 가슴에 내리는 촉촉한 단비'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였다.

① 공정 무역 제품의 소비를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⑤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공정 무역 제품의 소비를 직설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어휘 · 어법

4.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④

<보기 1>에서 불규칙 활용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보기 2>의 활용형에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보기 2>의 ㄹ을 보자. '흐르+어'가 '흘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흘러'는 기본형 '흐르다'의 어간 '흐르-'와 어미 '-어'가 모두 바뀐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④에서는 '흘러'를 '어미가 바뀐 경우'라고 탐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걷+어서'가 '걸어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어간이 바뀐 경우이다.

② '짓+어서'가 '지어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어간이 바뀐 경우이다.

③ '푸르+어'가 '푸르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어미가 바뀐 경우이다.

⑤ '빨갛+아서'가 '빨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시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5~8] 작품 해제

(가) 오세영, 「등산」

등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일에 몸을 의지하여 산을 오르면서, 깨달음이 없는 현재의 자신을 '무명의 벌레'로 비유하고, 어둠 속에서 암벽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타는 것처럼 자신을 빛을 찾아 쉬지 않고 무명을 더듬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고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 삶의 자세를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행복이나 불행 같은 것을 생각지 않는 구도자적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등산'은 더 높은 삶의 경지, 진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박재삼, 「흥부 부부상」

고전소설 '흥부전'을 모티프로 하여 가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는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웃음을 건네는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화자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과 격려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연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3연에서는 삶의 애환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다) 윤동주, 「간」

거북이의 꾐에 빠져 간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목숨을 건진다는 내용의 '구토지설(龜兎之說)'과 인간을 위해 제우스를 속이고 불을 훔친 죄로 코카서스 산에 쇠사슬로 묶여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다가 밤에는 그 간이 되살아나 영원히 고통을 겪는다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교묘히 결합하여, 현실적 고뇌의 극복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위기에서도 슬기롭게 '간'을 지킨 '토끼'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죄 아닌 죄를 짓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는 철저한 자기희생의 의지 및 인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5. 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고, (나)에서는 가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현실의 유혹이나 타협을 거부한 채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양심과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6. 작품의 표현상 특징 이해 및 비교 정답 ④

설의적 표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법을 말한다.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서는 '~이 문제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물질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한 설명이다.

① (가)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가)에서는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감탄형 어미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③ '그것이(은) 확실히 문제다' 등을 통해 볼 때 (나)에서는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다만 ~ 뿐이다' 등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어조로 표현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지 않았다.

7. 시어의 의미 추론 정답 ③

<보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를 추리해 보도록 하자.

ㄱ. 1연에서 '박덩이를 사이 하고' 흥부 부부가 서로 건네는 '웃음살'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볼 때 가난한 삶 속에서도 물질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웃음살'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운이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웃음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ㄴ. '웃음'은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의 의미와 연결할 때, 물질적인 부가 중요하지 않은, 즉 풍요롭지는 않지만 소박하게나마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웃음으로 볼 수 있다.

ㄷ. '웃어'는 '손발 닳은 처지끼리'와 연계할 때, 가난으로 인한 고달픈 삶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ㄹ. 흥부 부부는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라고 하고 있다. 이는 흥부 부부가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다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웃다가'는 서로 위로하는 웃음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절망감이 내재된 자조적 웃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ㅁ. 흥부 부부가 눈물을 흘린 행위가 너무 부끄러워 소스라치게 놀라다가 다시 웃는 '본(本)웃음'은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가난한 삶의 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ㄴ, ㄷ, ㅁ이 짝을 이룬 ③이 적절한 추리들로만 묶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ㄴ, ㄷ, ㅁ에서의 웃음들은 '가난한 흥부 부부의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이라는 주제에 맞는 웃음이라는 면에서도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8. 자료를 통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3연의 '여윈 독수리'를 보자. 이 독수리는 4연에서 '너'로 지칭되고 있는데, 화자인 '나'는 '여윈 독수리'에게 자신의 간을 뜯어먹으라고 하면서 '너는 살찌고/나는 야위어야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윤동주는 ~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늘 부끄러워했다. 그의 부끄러움은 식민지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신적 자아'와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체적 자아'의 갈등에서 촉발된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참고할 때, '나'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육체적 자아라면 '너'는 '나'를 희생하더라도 살찌우고자 하는 정신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한 감상 내용이 아니다.

인 문

[9~12] 지문 해제

이익, 「탕평(蕩平)」

탕평에 대해 주장하고, 과거제를 통한 인재 선발 과잉과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한쪽으로의 치우침과 사사로운 마음을 막아 극(極)을 세우면 탕평(蕩平)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중등 이하의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말이 아닌 이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로운 것을 좇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탕평을 하려면 이해가 같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쟁의 화가 과거 시험을 자주 베풀어 사람을 너무 많이 뽑는 데서 오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가 모두 귀족인 세조가의 자제들뿐인 것을 비판하고 있다.

9. 글의 서술 방식 파악 정답 ③

지문에서 특정 제재를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이를 체계적으로 전개했다고 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③은 지문에서 사용된 글쓰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연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배를 함께 타는 것과 부부가 한집에서 살림하는 것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서경』의 「홍범(洪範)」 편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첫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탕평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내 ~ 고치지 않을 것이다.' 등에서 상황을 가정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계하였다.

10. 자료를 활용한 글쓴이의 견해 비교 파악 정답 ⑤

지문의 글쓴이(A)는 탕평을 주장하며 과거 시험을 통해 귀족이나 세도가의 자제들만이 선발되는 불평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보기>의 글쓴이(B)는 하늘이 고르게 주신 재주를 집과 과거로써 제한하여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스스로는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의 글쓴이(A)와 <보기>의 글쓴이(B)는 모두 인재가 골고루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① A는 과거의 실시 횟수를 문제 삼고 있지만, B는 과거의 응시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② A, B 모두 인재의 등용 방법을 문제 삼고 있다.

③ A, B 모두 인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④ 과거 시험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B가 아니라 A이다.

11. 글의 핵심 논지를 고려한 문장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첫째 문단의 '극(極)을 세운 도는 마침내 탕평(蕩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탕평의 요점은 한쪽으로의 치우침과 사사로운 마음을 막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우치고 사사롭게 하면 어긋나고 기울어지게 되며, 넓고 공평하게 하면 바르고 곧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홍범」에서 말한 "임금이 극(極)을 세운다."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즉, ㉠은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임금이 정사를 펼칠 때 치우침과 사사로움이 없어야 왕도가 바르고 곧게 설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2. 문맥적으로 교체 가능한 한자어의 이해 정답 ①

ⓐ의 '빈말'은 실속 없이 헛된 말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말은 ①이다. '허언(虛言)'도 실속이 없는 빈말, 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② 감언(甘言) : 남의 비위에 맞도록 듣기 좋게 꾸미어 하는 말.

③ 실언(失言) : 실수로 잘못 말함. 또는 그렇게 한 말. '말실수'로 순화.

④ 망언(妄言) :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 말.

⑤ 참언(讒言) :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또는 그런 말.

언 어

[13~16] 지문 해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때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각 언어권에 따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글이다.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새로 익히는 언어를 간섭한다. 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때 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국어와는 꽤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국어는 음운 구조나 통사 구조가 외국어들과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인에게는 매우 쉬운 자음들의 차이 변별이라든지, 한국어 화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 구사하는 음운 규칙 등을 외국인들은 익히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한국어의 독특한 모음이라든지, 주격 조사와 보조사의 구별, 경어 체계 등은 외국인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각 언어권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 내용의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④

둘째 문단에서 '많은 외국어들이 조음점이 같은 자음들을 성대 진동 여부로 변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는 /h/ 소리를 동반하는 정도에 따라 이런 자음들의 차이를 변별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은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 모든 자음들을 변별한다.'라는 ④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첫째 문단의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 그들의 모국어가 새로 익힌 한국어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다섯째 문단의 '자신의 모국어에 조사가 없는 외국인들은 ~ 아예 조사를 생략하고 "꽃 핀다.", "아이 운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③ 넷째 문단의 '한국어의 /ㅡ/나 /ㅢ/ 같은 독특한 모음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익히는 일은 쉽지 않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셋째 문단의 '한국어 화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규칙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구사하고 있지만'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14.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①

㉠에서 '무성 자음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동화를 통해 유성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유성음('한국어의 유성음에는 모음과 유성 자음인 /ㄴ, ㄹ, ㅁ, ㅇ/이 있다.')과 유성음 사이에서 무성음 중 예사소리(ㄱ, ㄷ, ㅂ, ㅈ)가 유성음으로 나는 현상을 '유성음화'라고 한다. 이러한 유성음화가 나타나는 단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①이다. '아기'에서 모음 'ㅏ'와 모음 'ㅣ' 사이에 있는 'ㄱ'은 원래 무성음인데 유성음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고, '굴비'에서 유성 (자)음인 'ㄹ'과 모음 'ㅣ' 사이에 있는 'ㅂ'도 원래는 무성음인데 유성음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이다.

②는 '담당'에서만, ③은 '마디'에서만, ④는 '부부'에서만, ⑤는 '바지'에서만 유성음화가 나타나고 있다.

15. 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의 ㄹ을 보자. ㄹ의 '넓으십니다'에서 '-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다. 그리고 문장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사장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높임법에서는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도 있지만,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마음이 무척 넓으십니다'에서 '-시-'를 빼고 '마음이 무척 넓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6. 자료를 활용한 정보의 구체적 추론 정답 ②

피진은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과 영국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 대신 변형된 영어를 교역 언어로 사용하면서 처음 형성되었다. 즉, 피진은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교역을 위해 영어를 광둥어식으로 변형한 교역 언어인 것이다. 따라서 피진은 소수의 집단이 실용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 낸 일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① <보기>에서 사례로 든 피진은 중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두 언어의 통사 구조는 상이하다기보다 유사하다.

③ 세월이 지나 피진을 모국어로 삼는 언어 공동체가 발생하면, 이 혼성어는 피진이 아니라 크레올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진은 두 개의 언어, 크레올은 세 개 이상의 언어를 바탕으로 한 혼성어이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피진은 원래의 모국어들보다 훨씬 간단한 문법과 제한된 어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서 설명하였다.

⑤ 피진은 이것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가 없는 임시변통의 언어라는 면에서 공용어로 인정할 수 없다.

고전시가 + 수필

[17~21] 작품 해제

(가) 서거정, 「독좌(獨坐)」

은거하는 삶에서 느끼는 고독을 읊은 한시이다. 1~2행에서는 홀로 외롭게 앉아 있는 화자의 처지가 그려져 있고, 3~4행에서는 자연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여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5~6행에서는 젖은 거문고에서도 소리가 나고 식은 화로에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에게 아직 세상을 위해 펼칠 수 있는 능력과 포부가 남아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즉, 관직에 나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거문고의 소리'와 '화로의 불씨'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7~8행에서는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막고 있어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진흙길이 사라지면 언제든 문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세상에 나아갈 때를 의연하게 기다리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최현, 「명월음(明月吟)」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우국(憂國)과 임금을 사모하는 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는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림을 근심하고, 부채와 비로 구름을 걷어 내고 싶은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심을 지켜 밝은 달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자연 현상에 빗대어 어수선한 현실 상황에서도 구국을 염원하며 변함없는 충정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김정한, 「석류 일기」

먼 고향에 두고 온 아이들이 보내 준 석류 두 개와 편지를 보며 애절한 혈육의 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불의의 실직과 주림, 공포 속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 그러기를 반 년, 어느 날 뜻밖에도 고향 이웃에 산 일이 있던 R군이 숙소를 찾아와 겨우살이와 석류 두 개, 아이들의 편지를 꺼내 놓는다. 그 석류는 고향 집 뜰에서 익은 것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그 석류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며, 그것을 책상에 두고 차마 깨지 못했다.

17.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에서는 '빈뜰, 연잎, 나뭇가지' 등을 통해 화자가 찾아오는 이 없이 외로워하고 있고 이러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나)는 '부운(浮雲)'이 '명월(明月)'을 가린 것에 대해 화자는 부채로 구름을 다 걷고, 비로 구름을 다 쓸고 싶다고 하면서 단심을 지켜 명월 볼 날을 기다리겠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다)는 '석류'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애절한 혈육의 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공통적으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18. 작품에서의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①

(나)의 화자는 '매화'가 '날 따라 근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감정이 없는 매화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나)에서 '매화'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 자식들이 보내 준 '석류'를 통해 혈육의 정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다)에서 '석류'는 감정을 환기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①이 적절한 설명이다.

19.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이해 정답 ②

<보기>에서는 (가)가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계에서 물러나 한가로움을 즐기며 칩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 자신의 열정과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잎'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을 해석하면, 자연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거나 지금의 상태에서 무언가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심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히 이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20. 자료를 활용한 감상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구름이 달을 가려 희미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오는 상황을 근심하던 화자가 ㉡에서 다시 밝게 하려고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을 닦아 벽상에 걸어 두지만 거울은 제 몸만 밝히고 남을 비칠 줄 모른다고 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위기 상황을 염려하여 당시 상황을 타개하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이를 의병에 가담한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감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내용 이해를 통한 문장의 이유 추론 정답 ①

ⓐ의 이유는 석류에 담긴 의미와 관련이 있다. R군이 전해 준 석류 두 개에는 고향에서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과 가족과의 추억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의 바로 앞 문장에서 '나는 말없는 석류의 표정에서 무한한 말들을 엿듣고 있지 않았던가?'라며 반문하며 석류를 책상에 두고 차마 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에서 화자가 집으로 빨리 돌아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면에서 ①은 ⓐ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

③, ④ '석류'는 나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보내 준 것이기에 그것을 볼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홀로 있는 '나'가 가족과 함께 있다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석류를 책상에 두고 차마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소설

[22~25] 작품 해제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이 소설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이 겪는 공포, 고독, 상처 등을 사실주의적 기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전쟁을 통해 깊은 상처를 입은 젊은이들의 정신적 방황과 갈등,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 전후 파괴 상황을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는 원초적 생명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장면은 작품의 시작 부분으로, '동호'와 네 명의 수색 대원들이 불안함을 느끼며 조용한 마을을 수색하고, 수색대 조장인 '현태'는 앞장서서 집 하나하나를 신중히 수색하던 중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떠나지 못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한 채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색 대원들은 남은 빈집을 모두 수색하고는 뒷산으로 올라가 팔부 능선쯤 되는 바위 그늘에다 자리를 잡는다는 내용이다.

22. 글의 구체적 내용 확인 정답 ⑤

이 글의 '산 밑이 가까워지자 낮 기운 여름 햇볕이 빈틈없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시야는 어디까지나 투명했다.', '대낮에 다섯 명이나 산마루에서 어른거리는 일은 위험한 짓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마을 수색은 한낮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섯 명의 대원들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마을 수색을 마쳤다는 ⑤는 이 글의 내용과 다르다.

① (중략) 이후 현태와 여인의 대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그러는 동안 밖에서 경비를 보던 동호는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어쩐지 현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딴 세계의 일같이 생각됐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현실적인 시간 속에 서 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라는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보통 때는 느리고 곧잘 익살을 부리던 현태가 전투태세로 들어가면 동작이 일변하여 야무져지고 민첩해지는 것이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④ '그러고 보니 이집 저집 잿간에서 닭털이며 돼지털이며~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3. 작품의 서술상 특징 이해 정답 ②

이 글은 '동호'의 시각에서 서사가 전개되면서 그의 내면세계까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②)고 말할 수 있다.

① 이 글은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③ 회상하는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다양한 사건들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기보다 마을을 수색하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한 한 여인과의 만남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⑤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24. 작품에서 핵심 소재가 갖는 의미 추론 정답 ⑤

동호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상황(외적 세계)에서 마을을 수색하며 '이건 마치 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잠시나마 한눈을 팔았다가는 지금 자기가 가까스로 헤치고 나가는 이 밀도 짙은 유리가 그대로 굳어버려, 영 움쭉달싹 못하게 될 것만 같다고 여긴다. 동호는 자신이 마을을 수색하면서도 누가 자기네를 줄곧 감시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못한 압박감 속에서 다시 자신이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에 억눌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하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순수한 내면을 잃지 않으려는 동호의 짓눌린 자의식이 '유리'라는 소재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문맥을 고려한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을 보자.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제각기 수통에 넣어 가지고'는 마을 사람들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수색 대원들이 수색을 마치고 뒷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우물물'이 전쟁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 준다는 ⑤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과 학

[26~29] 지문 해제

반향정위와 동물의 생존 전략

동물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그것이 물체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반향정위(反響定位)라고 한다. 반향정위를 하는 대표적인 육상 동물에는 박쥐가 있다. 박쥐는 성대에서 주파수가 40~50kHz인 초음파를 만들어 입이나 코로 방사하는데, 방사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박쥐는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발달한 귀를 갖고 있는데,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가 인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초음파까지 들을 수 있다. 또한 박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수시로 바뀌는 반사음의 변화를 파악하여 먹이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포착한다. 어떤 곤충, 특히 박쥐의 주요 먹잇감인 나방은 박쥐가 내는 초음파의 반사음을 들을 수 있다.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때 박쥐에게 전달되는 초음파 정보를 교란시켜 박쥐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한다.

26. 세부 내용의 구체적 이해 정답 ③

둘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가 2.5~3.5회로 1.75회인 인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박쥐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초음파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는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초음파의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③처럼 말할 수 있다.

① 박쥐가 초음파를 만드는 곳은 성대이다.
② 지문에서는 반향정위를 하는 대표적인 육상 동물로 박쥐를 꼽았을 뿐, 반향정위를 대부분의 육상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④ 도플러 효과의 예로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뿐, 박쥐의 초음파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의 주파수가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⑤ 마지막 문단을 통해 나방의 움직임은 반사되는 초음파의 파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7. 내용 이해를 통한 자료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넷째 문단을 보면, 나방이 초음파의 강약에 따라 박쥐와의 거리를 파악하는데, 나방의 귀는 날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개를 내리면 귀가 날개에 덮여서 초음파를 잘 듣지 못하게 되어 박쥐가 위쪽에 있을 때는 날개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소리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초음파를 듣게 된다고 하고 있다. 반대로 박쥐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귀도 박쥐도 날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개의 퍼덕임과 상관없이 초음파가 거의 일정한 음량으로 들린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보기>의 C를 보면 박쥐가 나방보다 위쪽에 있으므로 이때 나방은 일정한 음량의 초음파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소리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초음파를 듣게 된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① 둘째 문단에서 박쥐는 먹이를 찾고 있을 때는 1초에 10번 정도의 간격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키지만, 먹이에 접근할 때는 보다 정밀한 정보 수집을 위해 1초에 120~200번 정도의 빠른 템포로 초음파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② 셋째 문단에서 '만일 돌아오는 반사음의 높이가 낮아졌다면, 먹이는 박쥐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A에서 C로 박쥐가 이동했을 때 먹이가 더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박쥐가 들은 반사음의 높이는 높아졌을 것이다.

③ 나방은 초음파의 강약에 따라 박쥐와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박쥐가 A보다 B에 있을 때 나방과의 거리가 더 가까우므로 A보다 B에서 나방의 귀에 들리는 초음파의 강도가 더 클 것이다.

⑤ 넷째 문단에서 '박쥐가 다가오는 방향의 반대쪽 귀는 자신(나방)의 몸이 초음파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다가오는 쪽의 귀보다 초음파가 약하게 들린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나방은 박쥐가 다가오는 쪽인 오른쪽에서 더 강한 초음파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28.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료의 내용 추론 정답 ②

[A]에서는 박쥐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먹이의 위치나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도플러 효과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 중 하나 이상이 운동하고 있을 때, 관측되는 파장의 길이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원과 관측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는 파장이 짧아져 음이 높게 들리고, 멀어져 갈 때는 소리의 파장이 길어져 음이 낮게 들린다. 이에 <보기>에서처럼 파원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갔다면 이전보다 더 짧아진 파장이 관측될 것이므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②가 적절하다.

③ 도플러 효과는 파원이나 관측자가 운동하고 있을 때 관측되는 파장의 길이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한다.

29.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③

'포착(捕捉)'은 '꼭 붙잡음. 요점이나 요령을 얻음.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③에서는 '포착(捕捉)'이 '확실하게 그러하다고 여김.'의 의미를 가진다고 풀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확실하게 그러하다고 여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말은 '인정(認定)'이다.

예 술

[30~33] 지문 해제

> **대위법의 구현 형태인 오르가눔의 발달 과정**
>
> 서양 음악사에 있어 단성(單聲) 음악을 다성(多聲) 음악으로 발달시킨 핵심은 대위법이라 할 수 있는데, 대위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노래되어도 소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
> 대위법이 적용된 최초의 형태는 9세기 중엽에 발생한 평행 오르가눔으로, 이는 두 개의 선율이 완전 5도라는 음정의 간격을 평행으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도록 한 것이다. 이때 기존 선율은 상성부에 놓이고 대위 선율은 완전 5도 아래, 즉 기존 선율의 하성부에 놓이게 된다. 11세기에는 자유 오르가눔이 등장하는데, 이는 기존 선율은 하성부에, 대위 선율은 상성부에 놓이며, 대위 선율이 기존 선율의 움직이는 방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는다. 12세기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은 음군이 사용되는 화려한 오르가눔이 탄생했다. 이는 이전 오르가눔과는 달리,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에 따라 변형됨으로써 기존 선율보다 대위 선율이 성가의 미적 감흥을 주는 중심 요소로 인식되게 된다. 12세기 말에 오르가눔은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이와 함께 대위법도 점점 고도로 발달하게 된다.

30. 세부 내용의 구체적 이해 정답 ②

지문의 첫째 문단에서는 '오르가눔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였고, 나머지 문단에서는 '오르가눔의 발달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오르가눔 단계에서는 화음 구성 방식 및 선율 배치 방식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오르가눔이 어떻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②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31.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Ⅰ은 완전 1도, 완전 5도, 완전 8도의 음정이 협화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유 오르가눔이라고 할 수 있고, Ⅱ는 두 개의 선율(ⓒ와 ⓓ)이 완전 5도라는 음정 관계를 평행으로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평행 오르가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Ⅲ은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은 음군이 사용되었으므로 화려한 오르가눔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려한 오르가눔에서는 기존 선율의 각 음이 대위 선율에서 사용되는 음의 수에 따라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소리를 길게 내면서 기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③).

지문에서 자유 오르가눔(Ⅰ)은 기존 선율은 하성부(ⓑ)에 놓이고, 대위 선율은 상성부(ⓐ)에 놓여 자유롭게 움직이되 기존 선율과의 음정 관계가 협화음을 유지하는 대위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①은 'ⓑ는 ⓐ를 기준으로'가 아닌 ⓐ는 ⓑ를 기준으로 협화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진행된다고 고쳐야 적절하게 된다.

32. 내용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①

[A]에서는 화려한 오르가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려한 오르가눔에서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은 음군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기존 선율에 변화를 가져 와 기존 선율의 각 음이 대위 선율에서 사용되는 음의 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기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는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에 따라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의 '주선율이 기존 선율에서 대위 선율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군.'이 된다.

④ 화려한 오르가눔은 이전 시대의 오르가눔보다 대위 선율이 더 화려해진 것이다.

33. 문맥적으로 유사한 의미의 단어 이해 정답 ⑤

㉠의 '두다'는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간격 따위를 주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⑤이다.

① '사람을 데리고 쓰다.'의 의미이다.

② '바둑이나 장기 따위의 놀이를 하다. 또는 그 알을 놓거나 말을 쓰다.'의 의미를 가진다.

③ '어떤 사람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가지다.'의 의미이다.

④ '생각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를 가진다.

사 회

[34~36] 지문 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기대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베르누이는 그가 고안한 게임을 통해 이를 설명하였다. 이런 행동의 원인은 '효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효용 이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 즉 '효용'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선택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효용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효용 함수'와 '기대 효용'을 사용한다. 효용 함수는 불확실한 상황의 위험을 반영하여 효용의 크기를 변환한 것이다. 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기대 이익 외에 기대 효용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34. 글의 표제와 부제 파악 정답 ⑤

지문에서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기대 이익 외에 기대 효용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르누이가 고안한 게임을 설명하고 크레이머가 사용한 효용 함수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지문의 표제로는 '불확실성 아래에서의 의사 결정'이, 부제로는 '기대 이익과 기대 효용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35. 글의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①

지문에서는 효용 이론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기대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이론의 관점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특정 이론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이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④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기대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그것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6. 내용을 고려한 자료의 비판적 이해 정답 ⑤

불확실한 상황의 위험을 반영하여 효용의 크기를 변환한 것이 효용 함수이다. <보기>에서는 [A]의 상황에 대해 '효용 = $\sqrt{\text{이익}}$'이라는 효용 함수를 사용하여 기대 효용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신발 회사와 코트 회사 간 기대 이익은 28과 50이거나 28과 10이 되어 더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⑤처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신발 회사가 기대 효용이 더 크므로, 기대 효용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신발 회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② [A]를 통해 코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기대 이익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트 제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해 겨울이 추울 경우는 50만 원이 생기지만, 따뜻할 경우는 10만 원의 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②처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A]를 통해 볼 때 기대 이익이 신발 회사는 28, 코트 회사는 30이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기대 효용이 신발 회사는 5.29, 코트 회사는 5.12이다. 이처럼 기대 이익과 기대 효용이 같은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④ [A]를 보면 신발 회사는 추운 겨울이든 따뜻한 겨울이든 이익이 동일하게 28이다.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 기대 이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고전소설

[37~40] 작품 해제

이정균, 「홍무왕연의」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김유신 이야기를 골격으로 삼고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보태 이루어진 고전소설로, 김유신의 일대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서현(舒玄) 부부는 별과 금갑동자(金甲童子)가 하강하는 꿈을 꾸고 잉태한 지 20개월 만에 김유신을 얻는다. 김유신은 재주가 과인하나 7년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물리칠 수 있는 액을 가지고 있다. 천관이란 기녀의 집을 출입하다가 모친의 엄한 훈계를 듣고 발길을 끊었는데, 평소처럼 그 집으로 들어간 말의 목을 벤다. 중악의 석굴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 그로부터 비결 한 권을 얻고, 그의 가르침대로 좋은 칼과 말을 얻는다. 한편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강남에 인걸이 났음을 알고 이를 없애려고 자객을 보내 7년을 찾았으나 실패한다. 산음에서 무예를 닦던 김유신이 증조부 구형왕의 몽중 지시로 위기에 처한 부친을 구한다. 김유신은 김춘추의 추천으로 시중이 되고 그의 둘째딸과 혼인한다. 염종이 김춘추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려다 실패하자 그를 모함하여 쫓아내고 정권을 잡는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하러 갔다가 투옥되고, 그를 죽이려는 을지문덕의 계교를 무사히 넘긴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 고구려로 가서 승리하고 백제의 흑치상지와 싸워 이기며, 모반한 비담을 굴복시킨다. 김춘추가 당나라에 청병하여 소정방이 오나 백제의 성충이 환군하게 하니 이를 안 김유신이 성충을 없앤다.

김유신은 백제의 장군 정복을 계교로 굴복시키고, 왜국병을 이끌고 쳐들어온 백제의 태자 임정을 물리치고, 대마도를 얻는다.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대승하고, 김유신은 소정방이 용을 낚아 백강을 건너게 하고 그와 벌인 여러 대결에서 이긴다. 김유신은 고구려가 침입하여 위기에 몰리자 중악산 강정노인의 도움으로 물리치고, 백제 유민의 반란을 진압하며,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패망시킨다. 당군(唐軍)의 횡포가 심하자, 석실노인으로부터 얻은 「사향가」로 당군이 돌아가게 하고, 왜국 첩자 현효를 사로잡는다. 김유신이 임종을 맞자 여러 전조가 나타나고, 그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37. 작품의 서술 방식 이해 정답 ④

'이때에 진평왕이 서현을 양주(梁州) 총관(摠管)으로 임명하고 ~ 고복이 사면으로 군사를 독촉하니 성이 거의 함락되었다.', '~ 드디어 말을 종횡으로 몰며 칼을 뽑아 들고서 깊은 구덩이를 뛰어 넘어 ~ 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글은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④가 적절한 설명이다. 참고로, 이 작품은 김유신의 일대기와 관련한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① 이 글은 김유신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도 현실적이다.

③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38.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보기>에서 '만약 올곧은 선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경박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쓴 책에 대한 겸손의 표시이면서, 이 책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허황되고 과장된 면을 포함시켜서 흥미 본위로 쓴 소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김유신의 싸우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점과 <보기>의 올곧은 선비들로부터 경박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내용을 연결한 ⑤는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책은 여러 역사서를 참고하여 지어지긴 했지만 책의 내용 중에는 허황되고 과장된 부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 김유신의 꿈에 구형왕이 나타나 전세의 위급함을 알려 주는 장면은 <보기>에서 말한 허황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9. 세부 내용의 구체적 이해 정답 ④

이 글의 '김양주가 드디어 환군하여 서울에 이르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궁궐 밖에서 맞이하였다. 대인이 유신의 공을 아뢰고자 하니 유신이 그만두기를 간하여 말하길' 부분을 통해, ④처럼 김유신은 부친이 자신의 전공을 왕에게 고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한 것이 아니라, 김유신의 공을 왕에게 고하려는 부친을 김유신이 만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은 낭비성에서 서울로 가는 이동 경로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서울에 도착한 후의 일이다.

40.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의 이해 정답 ③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은 김유신이 원일원과 지경개로 하여금 고구려 군사 좌우로 쳐들어오게 하여 고구려 군과 신라군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고구려 군사가 신라의 김서현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을 가지며,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누란지세(累卵之勢)'를 통해 김서현의 처지를 표현할 수 있다.

② 고구려 장수 기숙이 크게 놀라 달아나는 상황이므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인 '혼비백산(魂飛魄散)'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다.

⑤ ㉤에서 공자는 김유신을 얻기 위해 추운 날씨에 비가 내려 관이 모두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신을 기다리는 일을 꺼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을 이르는 말이 '삼고초려(三顧草廬)'이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